

열린시대

장정일 희곡시리즈 I

실내극 · 어머니 · 실크 커튼은 말한다

- 괴팍한 일상의 세기말적 상상력 · 서늘한 세가지 단편 -

97. 9. 11. 목 ~ 10. 5. 일

목 · 금 7:30

토 · 일 4:00 / 7:30

열린소극장 (5555-025)



기·획 / 심 장 신

침체된 경기영향에 따라 소극장들이 폐간 또는 폐간위기에 처해있다. 전국연극제이후 지속적으로 공연활동을 하고 있는 극단이 많지 않다. 그나마 관객동원이 괜찮은 아동극위주의 공연 정도만 행해지고 있다. 잘 만들어진(?) 서울 연극(뮤지컬) 초청공연이 범람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의 몇몇 연극단체에서 자기 나름의 길로를 모색하고 있다.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연극하는 사람의 문제로 축약되어 진다. 몇 개월동안의 연습과 공연속에서 작품 제작비 조차도 만들지 못하는 경제적 악순환, 적어도 여타의 직장인 만큼의 되지 않더라도 약소한(?) 금액이나마 힘든 상황이니..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몇몇 젊은이들이 연극공연장으로 모이기 시작하니..

연극하는 사람이라면 연극을 할려고 하는 사람과 연극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일단, 연극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거 몇년전에 비해 절대적 수치로 보아 적다.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여자인 경우가 많다. 연극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 아직도 나태함과 무절제한 생활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에게만 만족해 하는 형태의 연극행위가 태반이다.

오늘도 스스로에게 이러한 연극을 왜하고 있나 반문한다. 때론 벗어나고 싶다. 때론 모든것을 내팽개치고 싶다. 또, 이 작품을 왜 시작했나하고 후회막급을 되풀이 한다. 그러나 정작 오늘도 극장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고맙게도 아직도 연극에 대한 알 수 없는 사랑에 빠져있는 몇몇의 동지들이 있다. 그들이 있기에 나역시 존재하나 싶어진다. 그들이 있기에 연극역시 존재하나 싶어진다. 아니, 연극이 있기때문에 나와 그들이 존재하는게 아닐까?

급변화되는 90년대의 문화현상속에서 새로운 연극의 형태와 방법의 모색속에서 젊은 작가 장정일과 젊은 극단 열린무대의 만남을 시도하였다.

관음증에 걸릴 작가, 장정일

장정일에 대해서 평가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발가락 간지러운 일이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의 1/3도 나는 알지 못하고, 그가 본 세계의 1/3도 나는 보지 못했다.

또, 그가 쓴 글의 1/3도 나는 쓰지 못했다. 뭐든지 나는 그에게 있어서 1/3이나 보자란 것이다.

한때 겁없이 그에 대해서 떠벌리고 다닌 적이 있었다.

문학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장정일이란 작가를 입에 올리기도 하고, 또 평가를 하기도 한다.

나도 그런 무리 중의 하나였다.

장정일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관음증 환자들이다. 관음증이라는 것은 이상 성욕의 하나로서 남의 알몸이나 성교하는 장면을 몰래 훑쳐 봄으로써 성적 만족을 얻는 것을 말한다. 일종의 훑쳐보기다. 관음증에 걸린 환자들은 훑쳐 보기로 완전한 쾌락을 느낄 수 없다.

그의 공식적인 첫소설집인 『아담이 눈 뜰때』의 아담은 소유에 대한 관음증을 가지고 있었다. 아담은 일생 중에 가장 호기심이 많은 나이에 갖고 싶은 것이 세가지가 있었다.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봤고 그리고 책을 통한 쾌락 보다는 그것을 가졌다는 쾌락이 더 우선이었다. 하지만 그는 곧 알게 된다.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실내극』에서 어머니와 아들은 세상에 대한 관음증을 가지고 있다. 갇혀져 있는 세계에서 열린 세계를 마음껏 훑쳐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훑쳐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열린 동경의 세계에서는 더 갑갑함을 느끼고 만다. 따라서 그들의 쾌락은 감옥에서 사회를 보는 것이다. 관음증 환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훑쳐보고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불안해지고 그 대상을 볼 수 없게 된다. 관음증도 일종의 사랑에서 오는 것이다. 『실크 커튼은 말한다』에 등장하는 다리 찢는 여자와 실크 커튼은 관음증에 의해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왜 장정일은 이런 관음증의 환자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일까?

언젠가 장정일은 자신이 거짓말쟁이라고 한 적이 있다. 자신의 소설도 다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그가 만들어낸 인물들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고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이다.

장정일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훑쳐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즐기고 있다.

우리들 또한 장정일의 작품을 통해서 가려진 그의 언어들을 관음하고 쾌락을 느끼고 있다. 관음증에 걸렸다는 것, 다시 말해서 훑쳐 보는 것은 그 대상을 병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어떻게 보면 작가와 독자는 모두 서로를 한없이 훑쳐보고 있는 관음증 환자인지도 모른다. 장정일의 작품을 읽고 있노라면 아주 가끔씩은 뭔가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워질 때가 있다.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습들을 훑쳐 볼 뿐 자신의 것으로 가져 올 수는 없다. 왜냐면 훑쳐 보는 것에만 익숙해진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흉내낼 수는 없다. 만약에 자기가 훑쳐 본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말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큰얼굴처럼.

장정일이란 작가와 우리 사이에는 또 다른 알박한 '실크 커튼'이 가리워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정확하게 서로를 확인할 수 있거나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끝없이 훑쳐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장정일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우리에게 그 병을 옮기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장정일을 훑쳐 보고 있는 것이다.



연·출 / 구 현 철

명륜동의 지하 2층

컴컴한 실내, 삐걱거리는 객석, 뚝뚝 물세는 천정, 심심찮게 쥐들이 기어다니는
이곳에서 배우들과의 작업으로 보낸 여름
나의 공복감은 상상력의 빈곤에서 왔다.
하루가 끝났지만, 아직 굳은 살 박히지 않은 셀레임을
내일의 작업으로 미룬다.

그러나 현실은 망설임 없이 달려가며 비대해져만 간다.
세기말로 향하는 그 유치찬란한 속도감에 편승하지 못한 우리는 불안하지만
그것은 곧 우리들에 대한 억압과 구속의 다른 이름이 아니다.
점점 소외되고 희미해져 가는 실존의 자유에 대한 안타까움.
이 고문을 견디고 존재 의미를 되찾고 자존심을 회복하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반란을 일으켜야 할까.
살아있음의 지금을 더 오래 음미하기로 한다.

쓸쓸하여도 오늘은 죽지 말자
앞으로 살아야 할 많은 날들은
지금껏 살았던 날들에 대한
말없는 찬사이므로

— 장정일 「지하인간」 중 —

공연을 허락해 주신 장정일 작가님께 감사드리며
같이 작업했던 극장식구들, 즉흥 연주를 맡아준 세호, 모두에게 행운을 빈다.
그리고 창신님...고맙수!

지하 2층의 극장으로 내려오는 순간, 관객은 현실에서 연극에로의 긴 여행을 시작한다. 아득한 기억 속으로 들어가듯, 아픔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기록해내는 것. 그러면서 서로를 부둥켜 안을 수 있는 것.

기억속으로 들어가면, 아픔답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아프지 않은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

「실내극」의 어머니와 아들은 습관적인 절도와 체포로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을 사는 사회의 절대적인 소외자들이다. 이 세상이 오히려 영망진창이고 힘들고 불안한 그들의 몸짓은 우스꽝스럽고 괴팍하다. 결국 그들은 자유로워지기 위해 감옥에로의, 부조리한 도피 욕망을 꿈꾸는 것이다. '사면이 안전하게 막혀 있는' 완전한 구속은 오히려 완벽한 해방을 꿈꾸기에 적합하다는 자학적인 논리가 뒷받침하는 이런 도망 욕망은 「어머니」에 와서는 흰얼굴과, 큰주먹의 감옥에서의 동성애라는 사회적 반란으로 진전한다. 이들의 도착된 애정행각은 관계 맺음의 변화, 발전으로 세력의 반전을 통해 권력구조를 전복시키는 반란이며, 또한 '아름답고 죄없는 데, 순결한 씨방'으로서의 어머니 자궁속에서 새로 태어나고 싶은 욕망을 고해하게 된다.

「실크커티튼은 말한다」의 서로에게 다가가고자 하나 연민에 가까운 자기애에 빠져 서로가 만나지 못하는 남자와 여자는 세기말적 불임의 세계에 대한 경고이다. 여자의 다리를 훑쳐보며 이루어지는 남자의 수음은, 그래서 어둡고 황폐하고 절망적인 것이며 만남에 의해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꿈꾸어 볼 수 없는 세상은 비정한 기계의 세계인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의 느닷없는 울음은, 불품 없이 갈혀있던 자아에서 벗어나, 더 큰 세상을 품어 안고 그 속에서 살을 섞고 싶은 욕망, 진정한 자유로워짐의 인식의 전환인 것이다.

이들의 뒤틀리고 희극적인, 너무나 희극적인 일상들을 훑쳐보기란 분명 가슴 뻐근함일 것이다.

실내극 **꽃은 세상에서 내가 흠치고 싶은 유일한 거예요.**



어머니 · 김 영 림

'93 굿닥터
'96 우리들의 이야기, 돼지와 오토바이
'97 민들레의 노래



이들 · 백 현 주

'93 한씨 연대기
'94 하늬
'95 종이팽기
'96 돼지와 오토바이

어머니 **하늘에 계신 어머니의 자궁에 저를 맡기나이다.**



큰주먹 · 배 진 만

'96 유리 동물원,
우리들의 이야기, 돼지와 오토바이
'97 민들레의 노래, 서툰 사람들



흰얼굴 · 안 지 영
열린무대 2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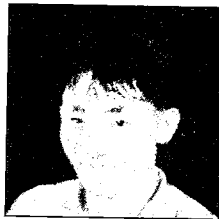
실크 커튼은 말한다

얽박한 실크 커튼에 가로 막혀 꼭 만나야 할 두 남녀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니?



다리 씻는 여자 · 정 화 선

'96 우리들의 이야기, 돼지와 오토바이
'97 민들레의 노래



남자 · 박 성 영

열린무대 2기
작가 · 배 진 만



무대감독 황성현



음악감독 이세호



무대미술 이잔주



음향 엄지선



조명 정은수



의상·소품 칙숙희



조연출 김수진



조연출 윤현미
기획 열린무대 기획실